

黃泌秀 校正本『增刪濂洛風雅』考察*

A Study of Pil-su Hwang's Jeungsan Yeomrakpunga

김 순 희 (Kim, Soon-Hee)**

◁ 목 차 ▷

- | | |
|--------------------------|---------------|
| 1. 서 언 | 3.1 卷數의 차이 |
| 2. 교정본의 간행 배경 | 3.2 편집의 차이 |
| 2.1 『濂洛風雅』 | 3.3 「易五贊」의 增刪 |
| 2.2 『增刪濂洛風雅』 | 3.4 名字의 기록방식 |
| 2.3 『增刪濂洛風雅』 田以采本 | 3.5 校正의 의의 |
| 2.4 『增刪濂洛風雅』 黃泌秀本의 간행 배경 | 4. 결 언 |
| 3. 교정의 방법 및 내용 | <참고문헌> |

<초 록>

본고는 조선 말기의 도서편찬자였던 愼村 黃泌秀(1842-1914)가 교정·편찬한 『增刪濂洛風雅』 校正本의 실상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이 작업은 황필수라는 중요 도서편찬자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이다. 황필수는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 초기에 활약한 도서편찬자로서 직접 편찬한 도서와 간행에 관계한 도서가 다수 있다. 그 중에서 그가 학동들에게 詩를 가르치기 위해 교정·편찬한 『增刪濂洛風雅』 교정본을 통해 주선후기 중요 도서편찬자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규명하였다.

『濂洛風雅』는 송대의 성리학자들이 지은 시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송말원초의 金履祥이 편집하고 唐良瑞가 재정리한 책으로, 조선조에 전래된 이래 유학자들의 중요 독서 대상이 되었다. 조선 중기의 朴世采가 『염락풍아』의 내용을 독자적인 관점에서 첨삭한 『증산염락풍아』를 편간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판을 거듭하였다. 그중 중요한 판본이 田以采가 간행한 것인데, 박세채의 증산본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황필수의 교정본은 전이채본을 저본으로 삼아 교정하였다.

『증산염락풍아』는 지송옥이 출판 목적으로 황필수에게 『增刪濂洛風雅』의 교정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의 출판문화사적 관점에서 볼 때, 지송옥과 황필수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황필수가 교정한 『濂洛風雅』는 조선 말기 출판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황필수라는 특출한 도서편찬자의 의식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要語: 조선말기, 황필수(黃泌秀), 증산염락풍아(增刪濂洛風雅), 염락풍아(濂洛風雅), 박세채(朴世采), 전이채(田以采), 김이상(金履祥), 당양서(唐良瑞), 출판문화, 도서편찬자, 교정본

* 이 논문은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접수일: 2018년 11월 5일 최초심사일: 2018년 11월 28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25일
서지학연구, 제76집, 307-336,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6.307]

<ABSTRACT>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Jeungsan Yeomrakpunga* (增刪濂洛風雅), edited and proofread by late Joseon's book compiler Sinchon (愼村) Hwang Pil-Su (黃泌秀, 1842-1914) with two other versions of *Jeungsan Yeomrakpunga* by Park Sea-Chae (朴世采) and Jeon Yi-Chae (田以采). By analyzing these books, it revealed importance of Hwang Pil-Su as a book compiler in the publication history. From late Joseon period to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Hwang Pil-Su was an active book compiler who compiled multiple books himself and have part in publishing other books. Among those books he took a part in for publication, *Jeungsan Yeomrakpunga*, the book written to teach other scholars the poetry, shows significant meaning of Hwang Pil-Su as a book compiler in the publication history. *Yeomrakpunga* (濂洛風雅) is a book that put together important poems written by scholars from Song dynasty. It was edited by Kim Li-Sang (金履祥) and reorganized by Dang Yang-Seo (唐良瑞) before publication in the end of Song dynasty and early of Yuan dynasty. When *Yeomrakpunga* came down to early Joseon period, it became important book to read for scholars. During mid Joseon period, Park Sea-Chae edited *Yeomrakpunga* with his own perspective and published *Jeungsan Yeomrakpunga*. After Park Sea-Chae's *Jeungsan Yeomrakpunga*, it was republished several times in different edition. Jeon Yi-Chae's edition of *Jeungsan Yeomrakpunga* shows difference with Park Sea-Chae's, and it is important since Whang Pil-Su referred to Jeon Yi-Chae's edition when he was editing and proofreading his.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Ji Song-Uk (池松旭) asked Whang Pil-Su to edit *Jeungsan Yeomrakpunga* to publish it. Looking at it with perspective of publication history, relationship between Ji Song-Uk and Whang Pil-Su is important. Whang Pil-Su's edition of *Jeungsan Yeomrakpunga* shows one section of late Joseon's publication culture and shows Whang Pil-Su's compability as a book compiler.

Key words: late Joseon, Hwang Pil-Su(黃泌秀), *Jeungsan Yeomrakpunga*(增刪濂洛風雅), *Yeomrakpunga*(濂洛風雅), Park Sea-Chae(朴世采), Jeon Yi-Chae(田以采), Kim Li-Sang(金履祥), Dang Yang-Seo(唐良瑞), publication culture, book compiler, proofread

1. 서 언

본고는 조선 말기의 도서편찬자였던 愼村 黃泌秀(1842-1914)가 교정·편찬한 『增刪濂洛風雅』(校正本¹⁾)의 실상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이 작업은 황필수라는 중요 도서편찬자의 출판문화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이다.²⁾ 황필수는 도서편찬자로서 직접 편찬한 도서가 11종이며 기타 간행에 관계한 도서가 다수 있다. 황필수가 기존의 『증산염락풍아』를 교정하여 간행한 것은 1902년(고종 39)으로 그가 61세 되던 해이다. 따라서 이 책은 26세 때인 1867년(고종 4)에 『達道大全』의 편찬에서부터 시작된³⁾ 그의 도서편찬 경력이 노숙한 경지에 이른 시기에 완성된 것으로, 황필수라는 특출한 인물의 위상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텍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규장각 소장본인 『濂洛風雅』⁴⁾가 황필수의 교정본임을 확인하고, 이보다 앞선 증산본인 박세채와 전이체의 『增刪濂洛風雅』와 비교 분석하였다.

『증산염락풍아 교정본』은 『濂洛風雅』와 『增刪濂洛風雅』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 가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일단 두 도서의 검토에서부터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증산염락풍아』에 대해서는 한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몇 편⁵⁾ 있으나, 『증산염락풍아』 교정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다. 『증산염락풍아』 교정본은 김종천이 황필수의 편간서를 개관하면서 처음 언급했다.⁶⁾ 그리고 김영봉이 『염락풍아』의 異本에 대해 고찰하면서⁷⁾ 황필수가 교정한 이본을 ‘『壬寅本增刪濂洛風雅』’라고 명명하고, 대략적으로 서지사항과 특징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황필수라는 교정자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증산염락풍아 교정본』을 분석하여 전문 도서편찬자 황필수의 역할을 자세히 밝혀 그가 조선 후기 도서출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다시 한 번 규명하고, 나아가 이 시기 도서 출간 문화의 일면을 조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1) 이 서명은 『濂洛風雅』, 『增刪濂洛風雅』 등과 구별하기 위해 임의로 붙인 것이다. 규장각 소장본의 표지에도 다만 『濂洛風雅』라고 되어 있다.

2) 김순희, “黃泌秀의 『達道大全』 고찰,” 『서지학연구』 제68집(2016. 12), 125-152.

김순희, “『新式儒胥必知』 고찰,” 『서지학연구』 제63집(2015. 9), 177-198.

3) 김순희(2016).

4) 표제어는 『濂洛風雅』이지만, 실체는 『增刪濂洛風雅』이다. 현재 규장각에 동일 서명의 도서가 8권이 있는데, 이중 황필수의 발문이 있는 것으로는 古 3441-17B-v.1-2가 유일하다.

5) 김기림, “朴世采의 『增刪濂洛風雅』에 대한 고찰,” 『東洋古典研究』 Vol.6(1996. 5), 107-135.

김동하, “朴世采의 『增刪濂洛風雅』 增補作品 考,” 『한국시가문화연구』 Vol.38(2016), 71-103.

최은주, “朝鮮後期 『濂洛風雅』의 수용양상과 그 의미,” 『大東漢文學』 Vol.26(2007), 249-280.

6) 김종천, “黃泌秀와 그의 편간서들,” 『서지학연구』 제10집(1994. 6), 275-288.

7) 김영봉, “『염락풍아』 이본 연구,” 『동방고전문화연구』 제4집(2002), 5-38.

2. 교정본의 간행 배경

황필수가 교정 간행한 『증산염락풍아』 교정본이라는 도서명 자체에 『염락풍아』라는 원본이 있고, 이 원본에 대해 일차 수정을 시도한 『증산염락풍아』가 있으며, 황필수는 이 『증산염락풍아』를 다시 2차 교정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 전개에 앞서 이 2종의 도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 『濂洛風雅』

‘濂洛’이라는 말은 북송 전기의 신유학자들을 통칭하는 말이고, ‘風雅’는 『詩經』의 國風과 大雅·小雅를 일컫는 말로, 詩經詩의 정통을 계승한 시를 말한다. 그러므로 『濂洛風雅』는 송말원초의 金履祥(1232-1303)이 송대 신유학자들의 시문 중에서 유학의 이념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편찬한 것이다. 周敦頤를 비롯하여 程顥, 程頤, 邵雍, 朱熹 등 48인의 신유학자가 선정되었고 그들이 지은 작품 423수가 수록되었다. 김이상은 전형적인 송대의 신유학자로 원나라가 들어서자 벼슬하지 않고 인산(仁山)에 은거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仁山先生’이라 불렀다. 그는 『염락풍아』를 비롯하여 『尙書注』·『論語集注考證』·『孟子集注考證』 등의 저술을 남겼다. 김이상은 유학을 신봉하는 인물로서 유학의 가르침을 천명하기 위해 이 『濂洛風雅』를 편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황필수가 이 책에 대해 교정 작업을 시도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송대의 신유학자 중 저명한 학자인 呂祖謙이 편찬한 『宋文鑑』·『古文關鍵』과 眞德秀가 편찬한 『文章正宗』 등의 시문선집에서 이미 송대 지식인들의 학술과 문학적 유산을 정리하고자 했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염락풍아』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저술로서의 의의도 충분히 갖고 있다.⁸⁾

김이상이 난주의 齊芳書舍에 머물 때가 있었는데, 제방서사는 唐良瑞라는 사람의 개인 서사였으므로 이 둘은 자연스럽게 만났고 이 때 당양서는 김이상이 수록해 놓은 초고 상태의 『염락풍아』를 직접 보았다.⁹⁾ 김이상은 남송 멸망 4년 전인 1275년(德祐 1)에 관직을 받았으나 취임하지 않았고, 은거하면서 堯에서부터 『資治通鑑』 이전까지의 사실을 하나의 책으로 편찬하여 『通鑑前編』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인용한 서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증하고 詮釋하여 내용의 숨意를 訂正하였으므로 이전의 유학자들이 미처 밝히지 못한 것을 해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¹⁰⁾ 이 시기에 『염락풍아』도 초고 상태의 편집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당양서는 김이상의 초고를 보고 ‘하는 말마다 가르침이 있고, 편편마다 감동이 있다(言言有

8) 朴素鉉, “金履祥『濂洛風雅』在宋儒選本上的定位,” 『中國學』 第54輯(2016. 3), 227-232.

9) 唐良瑞, 『濂洛風雅序』, “仁山金子吉翁 館我齊芳書舍 暇日相與從 言至於詩 因見其所編萃 有曰 濂洛風雅.”

10) 『元史』 『金履祥傳』, “斷自唐堯以下, 接于通鑑之前, 勒爲一書, 名曰通鑑前編, 凡所引書, 輒加訓釋, 以裁正其義, 多先儒所未發.”

教, 篇篇有感).’라고 하며 동조하였고, 이어서 김이상과 같이 紬繹하여 원고를 정리했다.¹¹⁾ 이것은 당양서가 김이상의 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양서는 송말원초 당시의 시는 풍아의 詩體가 아니고, 신유학자들의 시만이 풍아의 정통을 잇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양서는 이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하였고, 출간 전에 먼저 체재를 정리하였던 것이다.

당양서는 체재를 정리하면서 ‘類編’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풍아에는 정체가 있고 변체가 있으며, 소아가 있고 대아가 있다. 頌에도 또한 주송과 노송이 體가 다르니 풍아의 편집에 유형에 따라 분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경시, 銘, 贊, 誡, 贊, 誄, 四言詩 등을 풍아의 정체로 삼고, 楚辭의 歌操와 樂府의 韻語는 풍아의 변체로 삼고, 오언시와 칠언시 古風 등은 풍아의 再變으로 삼고, 절구나 율시 등은 풍아의 三變으로 삼았다.¹²⁾

당양서의 분류법은 중국 시학의 전통적인 인식과 흡사하므로 그만의 독창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김이상이 수집한 내용이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었는데, 이를 당양서가 실제로 편집 작업을 담당했다는 사실에 의의가 있다. 당양서의 손을 거침으로써 『염락풍아』는 하나의 완전한 도서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편집을 마치자 조리가 분명히 정리되고 의미가 길게 이어져 이로 인해 子姓을 사숙하게 되었고, 친구들 중에 이 책을 본 자들이 다 얻고자 했으므로 인하여 동지들과 함께 이 책을 간행했다.¹³⁾ 이 책은 1296년 초간되었고¹⁴⁾ 다시 1500년 명나라의 潘府(1453-1525)에 의해 중간되었다. 반부는 五經이 모두 역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이 또한 전형적인 유학자였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면서 五經을 聖人の 經傳이라 인식하고 강조하였는데, 이 점은 김이상과 매우 유사하다. 반부는 이 책에 대해 ‘김이상과 당양서 두 분 군자가 類萃하여 정밀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김이상이 자료를 모으고[萃], 당양서가 유형으로 분류했다[類]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염락풍아』라는 책을 처음 구상하고, 대상 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김이상이지만, 실제로 이 책의 형태를 완성하고 출간까지 담당한 주체는 당양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황필수의 경우와 비교해서 살펴볼 때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11) 唐良瑞, 「濂洛風雅序」. “因相與紬繹之.”

12) 唐良瑞, 「濂洛風雅序」. “風雅有正有變, 有小有大, 雖頌亦有周魯之異體, 則今日風我之編, 不可不以類分也. 於是斷取詩銘贊誡誄四言者, 爲風雅之正體, 其楚辭歌操樂府韻語則風雅之變體, 其五七言古風則風雅之再變, 其絕句律詩則風雅之三變也.”

13) 唐良瑞, 「濂洛風雅序」. “類聚而觀之, 條理明整, 意味悠長, 因以私淑子姓, 而朋友間見者, 皆欲得之, 因鉞諸梓, 與同志共言焉.”

14) 唐良瑞, 「濂洛風雅序」. “太歲丙申元貞二年四月既望 後學唐良瑞進之 敬書于石泉精舍.”

15) 潘府, 「濂洛風雅重刊序」. “金唐二君子類萃之精.”

2.2 『增刪濂洛風雅』 朴世采本

『염락풍아』가 조선에 유입된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李滉의 『退溪集』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고,¹⁶⁾ 李楨(1512-1571)이 이를 간행한 기록도 있으므로 조선 초기부터 이 서적이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정은 이 시기의 주목할 만한 도서관찬자로서의 의의가 있는 인물로서, 최초의 『염락풍아』 간행자였다. 이정은 1565년(명종 20) 순천 부사로 재직하면서 이 책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이 책은 다시 1667년(현종 8)에 嶺南巡營에서 중간되었다.¹⁷⁾

『염락풍아』는 사대부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로서의 가치를 지녀 지속적으로 재간행되었는데, 그중 朴世采(1631-1695)의 『증산염락풍아』가 가장 중요하다. 박세채는 일단 『염락풍아』가 유학 및 유학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했음을 인지하였다. 그는 『염락풍아』의 가치를 십분 이해하고, 여기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增補하고자 하는 내용과 刪削하고자 하는 내용을 밝혀 이 책을 편찬하였다. 박세채는 첨가하는 내용의 경우 제목 위에 小字로 ‘增’자를 붙여 표시하였고, 산삭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 위에 ‘刪’자를 붙였으나 내용을 삭제하지는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는 기존 『염락풍아』보다 양적으로 확대되는 결과가 되었다.

인산 김선생은 송나라 말기에 태어나 위로 朱子로부터 4번 전해진 학통을 접하여 은거하면서 저서에 전념했는데, 정밀하고 깊이 있으며 넓고 커서 진실로 성인의 경전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이 한 편은 더욱 예전 성현들이 학문하는 방법에 대해 남긴 뜻에 도움이 되는 바가 있다.¹⁸⁾

박세채는 전형적인 유학자의 입장에서 김이상이 朱子의 적통을 잇는 학자라는 점을 중시하였다. 실제로 김이상은 주자에서 黃榦, 황간에서 何基, 하기에서 王柏으로 이어지는 주자학의 정통을 계승한 성리학자였다.¹⁹⁾ 따라서 김이상이 편찬한 책은 유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은 김이상의 저술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다.

그가 기록한 것을 살펴보면 매우 많다. 간혹 모두 정확할 수는 없지만 절실하게 읊은 시들이 오히려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다 성리학서나 『성리대전』 등의 책에 계속 보이므로 대략적이거나 增刪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에 감히 잘 정리하고 고쳐 기록하여 보잘것없으나 아침저녁으로 경계하는 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아마도 선생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불초한 나 세채는 여기에 가만히 감동하는 바가 있다. 무오년(1678) 윤 3월 임자일에 심양 박세채 쓰다. 이 해는 송정 기원 후 51년이다.²⁰⁾

16) 李滉, 『退溪集』. 권22, <答李剛而>.

17) 최은주(2007).

18) 朴世采, 『南溪集』 卷66. 『濂洛風雅序』. “仁山金先生生于宋季, 上接紫陽四傳之緒, 隱居著書, 精深宏遠, 固多可以羽翼聖經者, 而惟此一編, 尤有所補於古昔聖賢爲學之遺意.”

19) 范壽康 著, 洪珉欽 譯, 『朱子와 그 哲學』 (대구: 嶺南大學校出版部, 1988), 282.

20) 朴世采, 『南溪集』 卷66. 『濂洛風雅序』. “顧其所錄頗廣. 或有未暇盡正, 而諷詠之切實者, 猶多放軼, 今皆續見於

박세채의 입장에서 볼 때 김이상의 『염락풍아』가 유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성리서에 자주 보이는 관련 시들을 보면서 원전에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이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안목을 바탕으로 재정리하여 이 『증산염락풍아』를 편찬하게 되었다. 이때 박세채는 당파의 영향으로 유배생활을 하면서 저술에 몰두하였던 시기였으므로, 김이상과 같은 심정으로 편찬에 임했을 것이다.

박세채가 증보한 작품의 경우, 작가는 20명이고 작품은 142수이다. 반면에 산제한 것은 44명의 177편이니²¹⁾ 증보한 것보다 산제한 것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박세채는 증보와 산제의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본다. 『濂洛風雅』卷1의 첫머리에 <古體>가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학자의 성정을 도야하는 내용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박세채는 范浚의 『心箴』을 증보하고 朱熹의 『敬恕齋銘』을 산제하였다. 이는 주희가 신유학자들의 학문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감안해 볼 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㉔ 문공(주희)이 말하기를 “범준은 일찍이 남을 따라 배우지 않았고 다만 스스로 식견이 지극하여 이러한 일을 말하기를 이와 같이 좋게 하였다.”라고 하였다.²²⁾

㉕ 왕문헌이 말하기를 “선생(주희)께서 <仲弓問仁> 단락에 답변한 것이 바로 敬恕의 道이다. 이것은 선생이 젊은 나이에 지은 것이다.²³⁾

㉔는 박세채가 『심잠』을 증보하고 나서 한 말이고 ㉕는 『경서재명』을 산제하고 나서 한 말이다. ㉔의 경우 『心經附註』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말했고, ㉕ 역시 『심경부주』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박세채가 『염락풍아』를 증산하는 과정에서 『심경부주』 등의 성리서를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심경부주』는 명대의 유학자인 程敏政이 眞德秀가 편찬한 『心經』을 주해한 책으로, 조선조 유학자들에게 널리 읽혔다. 박세채가 『염락풍아』의 증산을 시도한 것이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성리학적 차원의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염락풍아』는 당시 조선조의 선비들이 매우 선호하던 도서였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독서인이었던 李德懋의 말을 인용한다.

『염락풍아』 2책을 부쳤네. 내가 평소에 그 책의 격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 意趣는 항상 칭찬하여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니 한 번 보고 곧 돌려보내게.²⁴⁾

性理群書大全等書, 似亦不可不爲之略加增刪. 茲敢釐輯繕寫, 以備區區朝夕警戒之資, 庶幾無負于先生之教者. 采之不肖, 於此竊有所感焉. 歲在戊午閏三月壬子, 潘陽朴世采書. 時崇禎紀元之後五十有一年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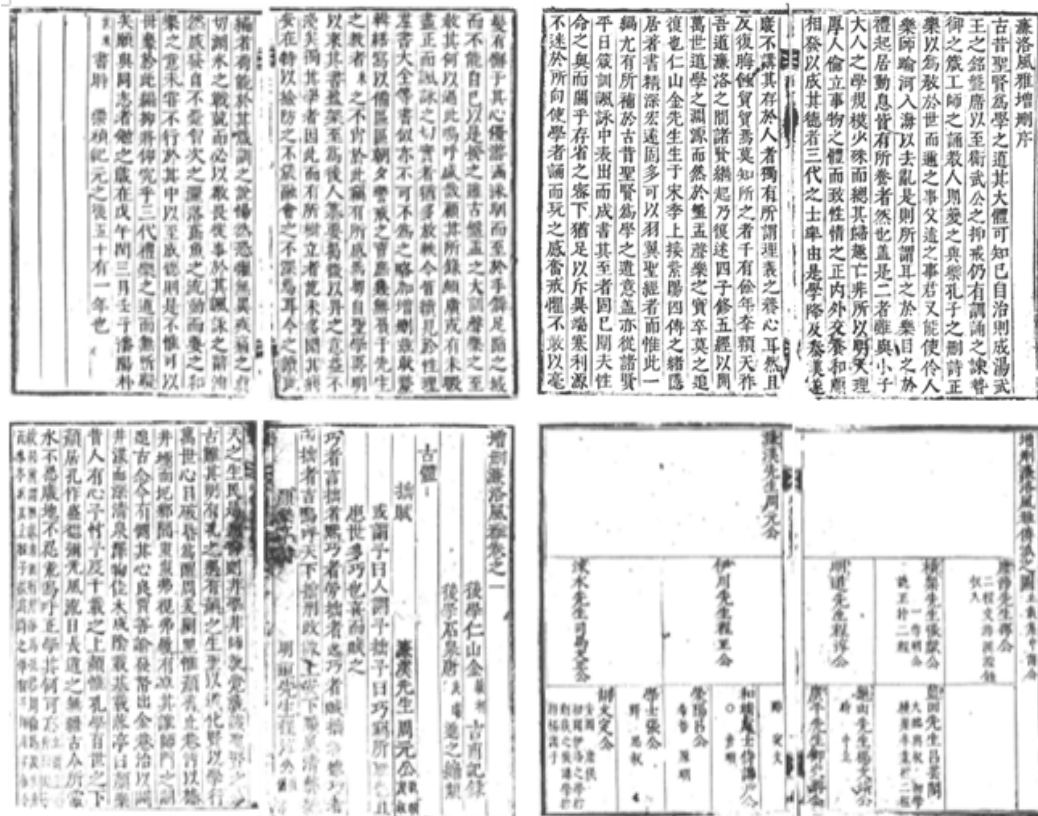
21) 김동하(2016), 78.

22) 朴世采, 『增補濂洛風雅』 卷1. 古體, 心箴(條). “文公曰 范不曾從人. 但他自見得到, 說得此件物事, 如此好.”

23) 朴世采, 『增補濂洛風雅』 卷1. 古體, 敬恕齋銘(條). “王文憲曰 夫子答仲弓問仁一段, 即敬恕之道. 此先生早年作.”

24)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15. 『雅亭遺稿7』 書1, <族姪復初光錫>. “濂洛風雅二冊 寄去耳. 德懋平生, 不許其調

이덕무가 위에서 언급한 『염락풍아』가 김이상이 편찬한 원본인지, 박세채가 증산한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정황상 박세채본일 가능성이 짙다. 이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반영한 탓으로, 『증산염락풍아』는 여러 차례 간행되어 다양한 판본이 있다.²⁵⁾ 그중 가장 늦게 출간된 것이 황필수가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황필수본은 『濂洛風雅』 계열 도서의 최종 완결판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박세채본

2.3 『增刪濂洛風雅』田以采本

이 책은 1796년 田以采가 출간하였다.²⁶⁾ 전이채는 泰仁의 아전 출신으로 호남지방의 방각본

格, 而其意趣未嘗不僕僕稱說, 不忍釋手, 一覽即還也.”

25) 김영봉(2002) 참조.

26) 이 책의 目錄 아래에 ‘歲在丙辰開刊’이라는 기록으로 인해 출간년도에 대해 1736년이라는 설과 1796년이라는 설이 있는데, 확실히 단정할 수 없다.

출간을 주도했던 중요한 민간출판업자였다.²⁷⁾ 이 책은 박세채본을 일부 교정·재편집하여 간행한 것인데, 권말에 ‘田以采梓’라고만 적혀 있고 다른 序跋이 없으므로 누가 실질적으로 교정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전이채는 학문적 조예가 있는 유학자라기보다 전문출판업자였기 때문에 그가 직접 교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황필수는 전이채본을 저본으로 삼아 교정하였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그대로 수용하였다. 황필수가 전이채본을 중심으로 교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박세채본이 기본 텍스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전이채본

2.4 『增刪濂洛風雅』 黃泌秀本の 간행 배경

황필수는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유학자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자신의 재능인 도서출판의 능력을 바탕으로 유학을 계승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다. 황필수가 편찬한 도서의 특징 및 의의는 유학의 보존과 계승, 민중의 계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책은 이 두 가지 의의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내가 금년(1902) 여름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당석천(唐良瑞, 石泉은 호)이 類編한 『염락풍아』를 얻어 읽어보았더니, 말은 순수하고 기운은 화평하여 정체와 변체의 사이에서 근체가면서 삼백편의 뜻을 얻었으니 정숙자의 ‘별도로 시를 짓고 싶다.’라는 뜻이 합당하여 여기에 있는 듯하다. 그래서 직접 교정하여 주었으니 아침저녁으로 시를 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²⁸⁾

27) 柳鐸一, “湖南地方刊行 坊刻本 연구(2),” 『인문논총』 제23집(1983), 37-48 참조.

28) 黃泌秀, 『濂洛風雅跋』, “余於今年夏, 將以敎家塾童子詩, 得唐石泉類編濂洛風雅而讀之, 其言也純粹, 其氣也和, 正變之間近體而得三百篇之志趣, 有合於程叔子別欲作詩之意, 有其在斯矣. 手自校正而卑與之, 以爲朝夕

위의 인용을 살펴보면 황필수는 ①『염락풍아』의 내용이 『詩經』의 本意를 갖고 있으므로 ② 이를 학동들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교정 작업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시경』은 유학의 경전으로 서의 의의가 있고, 학동의 교재로 사용했다는 것은 계몽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책이 출간되는데 있어서 황필수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자가 池松旭이다. 지송옥은 新舊書林의 설립자로서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출판인이었다.²⁹⁾

지송옥 군은 지사이다. 이 책을 보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한 집안이 어질게 되는 것이 어찌 이를 세상에 공개하고 책으로 간행하여 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모두 지군 같이 시를 교훈으로 삼아 지금 다시 가르침이 유행하고 이어진다면 또한 아름다울 것이다.³⁰⁾

황필수와 지송옥은 도서편찬자와 출판인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 책을 출간하기 2년 전에 이들은 『增補四禮便覽』을 함께 간행하기도 했다.

지송옥 군은 좋은 사람으로 경서와 전적에 뜻이 있어 여러 책을 간행하였다. 이제 이 책을 다시 인쇄하고자 하여 나에게 교정을 부탁하였다.³¹⁾

이러한 인연에서 비롯하여 황필수는 지송옥의 출판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1902년에 『進修堂鑑定施行簡禮彙報』와 『增補天機大要』, 『增刪濂洛風雅』 등을 간행하는데 협력하였다.³²⁾ 지송옥은 격변하는 시대적 조류에서 자신의 출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러 도서를 간행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이었다. 그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書簡의 여러 서식을 정리하고 새로운 형식을 포함하여 『新編尺牘大方』을 출간한 예에서도 이러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³³⁾

황필수와 지송옥이 협력하여 여러 도서를 출간하게 된 동기는 첫째, 유학을 포함한 전통적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보존하기 위함이었고, 둘째, 지송옥이 황필수의 도서 교정 및 편찬 능력을 인정하여 전적으로 의뢰하던 사이였고, 셋째, 이러한 출판 사업을 통해 민중을 계몽하고자 했던 사회사업가로서의 사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문출판인으로서의 이윤 추구가 없지 않았겠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諷詠而俾有得焉.”

29) 최호석, “지송옥과 친구서림,” 『고소설연구』 제19집(2005. 6), 255-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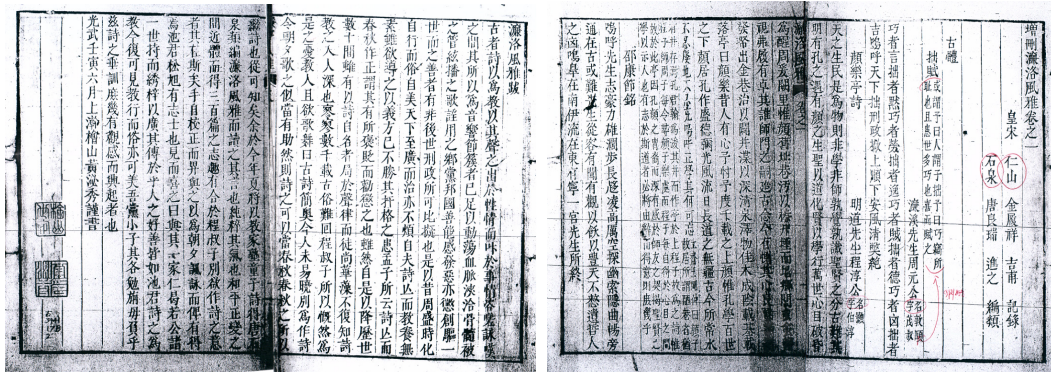
이경현, “1910년대 新文館의 문학 기획과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30) 黃泌秀, 『濂洛風雅跋』, “池君松旭有志士也, 見而喜之曰 與其一家仁, 曷若公諸一世持而綉梓, 以廣其傳於乎人之好善, 皆如池君, 詩之爲教, 今復可見教行, 而續亦可美.”

31) 黃泌秀, 『重刊四禮便覽序』, “池君松旭好人也 有志經籍 多少刊行 今欲重鉞是書 請余證訂.”

32) 최호석(2005), 260.

33) 閔種默, 『新編尺牘大方序』, “現今時風一變 各樣書類 殆無定規 新進後學 雖欲援古微 今于何摸倣 池君松旭甫惟是之憂 搜輯舊聞 採用新式 作爲一篇 名之曰 新編尺牘大方.”



<그림 3> 황필수본

3. 교정의 방법 및 내용

황필수가 교정한 도서들을 살펴보면 원전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체재와 구성을 바로잡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이 책에서도 그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3.1 卷數의 차이

박세채본은 7권2책이고 전이채본은 5권2책, 황필수본은 4권2책으로 편집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박세채본의 권3과 권4를 산제하여 5권으로 편찬한 것이 전이채본이고, 전이채본의 권1과 권2를 1권으로 합하여 총 4권으로 편찬 것이 황필수본이다.

박세채본의 권3과 권4의 내용은 각각 五言古風과 七言古風인데, 이를 산제한 이유는 五言絶句와 五言律詩, 七言絶句와 七言律詩를 수록하고 있으므로 굳이 古風體의 한시를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전이채본의 경우, 권1은 산문이고 권2는 五言古體의 시인데, 이를 황필수본에서 권1로 합한 이유는 비록 각 권의 문장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이 모두 유학자의 심성 도야와 학문 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 권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3.2 편집의 차이

박세채본 권2는 '古體之次'라는 小題로 시작하는데, 이는 권1의 소제가 '古體'이기 때문이다. 박세채본에서는 권2의 맨 처음에 「李仲通銘」, 「西銘」, 「東銘」, 「古樂府7首」 등이 실려 있다. 그런데

전이채본과 황필수본에서는 이 내용을 권1의 ‘古體’에 수록하였다. 이는 내용의 일관성을 추구하여 편차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박세채본 권3의 마지막에 수록된 五言排律 3首와 「增仁術」, 「增聞善決江河」, 「增孝宗皇帝晚章」와 「齋居感興 20首」는 전이채본과 황필수본에는 권2에 수록하였다. 이는 박세채본의 3권 전체를 산제하면서도, 이 작품들을 누락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편집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는 예도 있다. 박세채본 권6의 「羅先生唱和」라는 칠언절구는 李延平의 항목에 실려 있는데, 박세채본과 황필수본에서는 권3에 「贈和李延平」이라는 제목으로 羅豫章의 항목에 수록되어 있다. 이연평은 주희의 스승인 李侗이고, 나예장은 이동에게 신유학의 정통을 전해 준 羅從彦을 말한다. 이 시는 나종언이 지은 것으로 「勉李愿中五首」라는 제목의 시 중에서 제4수이다.³⁴⁾ 따라서 전이채본과 황필수본대로 나종언의 항목에 수록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3.3 「易五贊」의 增刪

이 글은 朱熹가 『周易』을 해설하면서 붙인 5편의 문장으로 내용은 象의 본질을 밝힘[原象], 주역을 지은 동기[述旨], 점치는 방법을 밝힘[明筮], 象의 구조[稽類], 주역을 공부하는 자세[警學] 등이다.³⁵⁾ 「역오찬」은 김이상의 원전에는 없는 글로, 박세채가 添增한 것이다. 박세채본에는 5편이 전부 수록되었으나, 전이채본과 황필수본에는 <明筮>와 <稽類> 두 편은 누락되어 있다. 이는 두 편이 배우는 자들의 학습 과정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3.4 名字의 기록방식

박세채본에서는 대상의 일반적인 호칭 아래 소자쌍행으로 名과 字를 구분해 기록했으나, 황필수본은 굳이 ‘名’ 자 밑에 이름을 쓰고, ‘字’ 자 아래 자를 써 놓았다. 이는 황필수의 시대만 해도 유학자들의 名과 字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각 권수의 제목아래 편찬자를 밝힌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 ㉔ 後學仁山金履祥吉甫記錄
後學石泉唐良瑞進之編類
- ㉕ 皇宋 仁山 金履祥 吉甫 記錄
石泉 唐良瑞 進之 編類

34) 羅從彦, 『豫章文集』 卷13.

35) 朱熹 著, 白殷基 譯註, 『周易本義』 (서울: 여강출판사, 1999), 690-708.

황필수본에서 이들의 이름을 소자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띄고, 특히 ‘後學’이라는 말을 빼고 ‘皇宋’이라는 말을 더한 것은 의미가 있다. 김이상과 당양서는 송말원초의 사람들인데, 황필수가 이들의 이름 앞에 ‘皇宋’이라고 명시한 것은, 그의 유학에 대한 존모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황필수는 김이상이 정리하고 당양서가 類編한 이 저서가 근본적으로 송대 유학자들의 학문과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시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는 이 책을 중간함으로서 유학의 가르침을 회복하려고 했던 황필수의 편찬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3.5 校正의 의의

황필수가 발문에서 ‘校正’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의의가 있다. 원고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간행한 校訂本이 아니라, 출판물을 원고와 대조하여 바르게 정정하는 校正本이라고 밝힌 것이다. 황필수본·전이채본·박세채본의 체재 및 증산 내용 등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황필수본·전이채본·박세채본의 비교표

	황필수본	전이채본	박세채본
판본	규 古3441(1902)	가람古811.4(1796)	국중3175(1678)
권책수	4권2책	5권2책	7권2책
서지기술	增刪濂洛風雅 / 金履祥(元) : 唐良瑞(元) 共編 : 朴世采(朝鮮) 增刪. [英祖12年(1736)]. 木版本. [刊地未詳]: [刊者未詳]. [光武6年(1902)]. 4卷2册: 四周單邊, 半郭: 22×16.9 cm, 12行23字 注雙行, 上下向黑魚尾. 29.5×19.5 cm.	增刪濂洛風雅 / 金履祥(元) 撰: 唐良瑞(元) 類編: 朴世采(朝鮮) 增刪. [英祖12年(1736)]. 木版本. [태인]: [田以采], [丙辰(1796)]. 5卷 2册: 四周單邊, 半郭: 18.3×13.6cm, 10行 20字 注雙行, 上下向黑魚尾, 27.4×17.8cm	增刪濂洛風雅 / 金履祥(元) : 唐良瑞(元) 共編: 朴世采(朝鮮) 增刪. 1678. 藝閣印書體字本. 7卷2册: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1.1 x 13.1 cm, 10行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 29.0 x 17.3 cm
表紙書名	濂洛風雅	濂洛風雅	濂洛風雅
版心題	濂洛風雅(판구)	濂洛	增刪濂洛風雅
卷首書名	增刪濂洛風雅	增刪濂洛風雅	增刪濂洛風雅
序	濂洛風雅序	濂洛風雅序	濂洛風雅序
重刊序	重刊序	濂洛風雅重刊序	濂洛風雅重刊序
增刪序	增刪序	濂洛風雅增刪序	濂洛風雅增刪序
傳派之圖	없음	없음	增刪濂洛風雅傳派之圖
目錄	없음	있음	없음
편저자 기술방식	‘後學’ 빼고 ‘皇宋’ 皇宋 仁山 金履祥 吉甫 記錄 石泉 唐良瑞 進之 編類	後學仁山金履祥吉甫記錄 後學石泉唐良瑞進之編類 卷之二 이후 편저자명을 생략	성명 중 名을 소자로 後學仁山金履祥吉甫記錄 後學石泉唐良瑞進之編類
내용구분 (분류)	古體, 五言絶句, 五言律詩, 七言絶句, 七言律詩로 분류	古體, 五言絶句, 五言律詩, 七言絶句, 七言律詩로 분류하였으나, 六君子贊, 三君子贊, 四齋銘 등도 한자만 내려 써서 古體, 五言律詩 등과 마찬가지로 구분	古體, 五言古風, 今體, 七言古風, 五言絶句, 五言律詩, 五言排律, 七言絶句, 七言律詩, 七言排律

	황필수본	전이채본	박세채본
작자표시	名아래 이름을 字아래 자를 씀	호나 시호 아래 이름과 자를 소자쌍행. 이름을 쓰는 경우 姓을 생략	호나 시호 아래 이름과 자를 소자쌍행. 이름을 쓴 경우 姓을 생략
增刪표시	없음	없음	있음
다편 수록 시 번호	其一, 其二…로 번호부여.	번호없이 동등하게 나열하거나 其一, 其二…로 번호부여.	번호없이 줄만 바뀌 수록하거나, 右…
文體 注 기입방식	문체명 아래 소자쌍행으로 쓰고 줄바 뀌 작자 씀	문체명 아래 작자 쓰고 줄바뀌 소자쌍 행으로 씀	문체명 아래 작자 쓰고 줄바뀌 기준자 로 씀
편수표시	소자	소자	기준자 간혹 首를 絶로(권6偶書送王敬巖江東 憲節)
注위치 및 기입 방식			
수록 순서	武夷權歌 ^{十首} 拜鴻慶宮有感	拜鴻慶宮有感, 武夷權歌 ^{十首}	七言絶句에 수록된 순서가 武夷權歌 ^{十首} 拜鴻慶宮有感

		황필수본	전이채본	박세채본
권 1	古體	拙賦 濂溪先生周元公 ^{名敦頤 子茂叔}	拙賦 濂溪先生周元公 ^{敦頤 茂叔}	拙賦 濂溪先生周元公 ^{敦頤 茂叔}
		顏樂亭詩 明道先生程淳公 ^{名頤 子程頤}	顏樂亭詩 明道先生程淳公 ^{程頤}	顏樂亭詩 明道先生程淳公 ^{程頤}
		邵康節銘	邵康節銘	邵康節銘
		四箴 伊川先生程正公 ^{名頤 子正淑}	四箴 伊川先生程正公 ^{正淑}	四箴 伊川先生程正公 ^{正淑}
		右視箴	視箴	右視箴
		右聽箴	聽箴	右聽箴
		右言箴	言箴	右言箴
		右動箴	動箴	右動箴
		女戒 橫渠先生張獻公 ^{名載 子子厚}	女戒 橫渠先生張獻公 ^{載 子厚}	女戒 橫渠先生張獻公 ^{載 子厚}
		大順 城銘	大順城銘	大順 城銘
		西銘	西銘 橫渠先生	君子吟 康節先生邵堯夫 ^雍
		東銘	東銘	增 心箴 范蘭溪 ^{凌 茂明}
		古樂府	古樂府	小學題辭 晦庵先生朱文公 ^{憲 仲晦}
		右短篇歌	短篇歌	學古齋名
		右日重光	日重光	求放心齋銘
		右度關山	度關山	尊德性齋銘
		右鶴鳴	鶴鳴	刪 敬怒齋銘
		右對酒今朝	對酒今朝	增 書字銘
		右燕歌行	燕歌行	增 寫照銘
		右同門行	同門行	敬齋箴
		右鞠歌行	鞠歌行	增 寫照銘
		君子吟 康節先生邵堯夫 ^{字堯夫}	君子吟 康節先生邵堯 ^{堯夫}	敬齋箴

	항필수본	전이채본	박세채본
	心箴 范蘭溪 名凌 字茂明	心箴 范蘭溪 凌 茂明	調息箴
	李仲通銘 程明道	李冲通銘 程明道	增 易五贊
	小學題辭 晦庵先生朱文公名意 字仲晦	小學題辭 晦庵先生朱文公意 仲晦	增 右原象
	學古齋名	學古齋名	增 右述肯
	求放心齋銘	求放心齋銘	增 右明筵
	尊德性齋銘	尊德性齋銘	增 右稽類
	敬怒齋	敬怒齋	右 警學
	書字銘	書字銘	增 復卦贊
	寫照銘	寫照銘	靜江府虞帝廟碑詩
	敬齋箴	敬齋箴	六君子贊
	寫照銘	增 寫照銘	濂溪先生
	敬齋箴	敬齋箴	明道先生
	調息箴	調息箴	伊川先生
	原象 국중(1678년)본에는	原象	橫渠先生
	述肯 易五贊 아래 5개가 수록되어 있으나 (규)본은 각각 4개가 동등하게 수록되고 (국)의	述肯	康節先生
	明筵, 稽類가 빠짐. 原象注: 易五贊明筵稽類二贊剛 耦->偶, 離->离, 弗->不 ※ 注의 내용이 다름	警學	涑水先生
	復卦贊	復卦贊	增 聚星亭贊 並序
	六君子贊	六君子贊	旌忠愍節廟銘
	右濂溪先生	濂溪先生	刪 劉少傳銘 子羽
	右明道先生	明道先生	祭延平先生文
	右伊川先生	伊川先生	讀書樓銘 南軒先生張宣公拭 敬夫
	右橫渠先生	橫渠先生	蔡軒石銘
	右康節先生	康節先生	南劍州尤溪縣學傳心閣銘 爲石子重作
	右涑水先生	涑水先生	顧齋銘 爲字丈紹節作
	靜江府虞帝廟碑詩	靜江府虞帝廟碑詩	增 主一齋銘
	聚星亭贊	聚星亭贊	增 消人欲銘
	旌忠愍節廟銘	旌忠愍節廟銘	增 長天理銘
	劉少傳銘 子羽 銘	劉少傳子羽銘	諸葛武侯畫像贊
	祭延平先生文	祭延平先生文	增 主一箴
	讀書樓銘 南軒先生張宣公 名拭 字敬夫	讀書樓銘 南軒先生張宣公拭 敬夫	熙熙陽春詩 靜江勳農
	蔡軒石銘	蔡軒石銘	南康別朱先生 劉靜春 清之 子澄
	南劍州尤溪縣學傳心閣銘 爲石子重作	南劍州尤溪縣學傳心閣銘 爲石子重作也	祭晦庵先生 建安范伯崇 念德
	顧齋銘 爲字丈紹節作	顧齋銘 爲字丈紹節作	刪 晦庵先生贊 陳北溪 淳 安卿
	主一齋銘	主一齋銘	增 蒙齋銘 西山眞文忠公 德秀 景元
	小人欲銘	消人慾銘	增 敬義齋銘

항필수본		전이채본		박세채본	
長天理銘		長天理銘		增 心經贊	
諸葛武侯畫像贊		諸葛武侯畫像贊		增 勿齋箴	
主一箴		主一箴		增 夙與夜寐箴	陳南塘 栢 茂卿
熙熙陽春詩 勸農二十四章章四句	靜江	(권지2) 熙熙陽春詩 勸農二十四章章四句	靜江	魯齋箴	北山何文定公 基 子恭
南康別朱先生	劉靜春 名淸之 字子澄	南康別朱先生	劉靜春 淸之 子澄	潛夫井銘	
祭晦庵先生	建安范伯崇 名伯崇 字念德	祭晦庵先生	建安范伯崇 念德	刪 蒲圻周令君銘	
晦庵先生贊	陳北溪 名淳 字安卿	晦庵先生贊	陳北溪 淳 安卿	三君子贊 爲金吉父書	魯齋王文憲公 栢 仲會
蒙齋銘	西山眞文忠公 名德 秀 字景元	蒙齋銘	西山眞文忠公 德秀 景元	朱文公	
敬義齋銘		敬義齋銘		張宣公	
心經贊		心經贊		呂成公	
勿齋箴		勿齋箴		刪 秋蘭辭	
夙與夜寐箴	陳南塘 名栢 字茂卿	夙與夜寐箴	陳南塘 栢 茂卿	刪 愛日齋箴 爲族孫瑛作	
魯齋箴	北山何文定公 名基 字子恭	魯齋箴	北山何文定公 基 子恭	권지2 古體之次	
潛夫井銘		潛夫井銘		李冲通銘	明道先生
蒲圻周令君銘		蒲圻周令君銘		西銘	橫渠先生
三君子贊	魯齋王文憲公 名栢 字仲會	三君子贊 爲金吉父書	魯齋王文憲公 栢 仲會	東銘	황본에 서는 권1 앞쪽
右朱文公熹		朱文公 熹		古樂府	
右張宣公植		張宣公 拭		右短簫歌	
右呂成公祖謙		呂成公 祖謙		右日重光	
秋蘭辭		秋蘭辭		右度關山	
愛日齋箴 爲族孫瑛作		愛日齋箴 爲族孫瑛作		右鶴鳴	
擬招	呂藍田 名大臨 字與叔	擬招	呂藍田 大臨 與叔	右對酒今朝	
祭伊川先生文	張學士 名繹 字思叔	祭伊川先生文	張學士 繹 思叔	右燕歌行	
字朱元晦祝辭	劉屏山 字彥謨 字子蒙	字朱元晦祝辭	劉屏山 彥謨 子蒙	右同門行	
虞帝廟樂辭	朱文公	虞帝廟樂辭	朱文公	鞠歌行	
劉屏山蒙齋琴銘		劉屏山蒙齋琴銘		增 擬招	呂藍田 名大臨 字與叔
紫陽琴銘		紫陽琴銘		增 祭伊川先生文	張學士 名繹 字思叔
感春賦		感春賦		增 字朱元晦祝辭	劉屏山 字彥謨 字子蒙
白鹿洞賦		白鹿洞賦		虞帝廟樂辭	朱文公
招隱操		招隱操		劉屏山蒙齋琴銘	
其二		其二		紫陽琴銘	
釣臺詞 此詞實亦先生所作		釣臺詞 此詞實亦先生所作		增 感春賦	
四齋銘		四齋銘		白鹿洞賦	
右志道		志道		招隱操	
右據德		據德		增 釣臺詞 此詞實亦先生所作	
右懷仁		依仁		增 四齋銘	
右游藝		游藝		右志道	
張敬夫畫像贊		張敬夫畫像贊		右據德	
呂伯恭畫像贊		呂伯恭畫像贊		右依仁	
書畫像自警		書畫像自警		右游藝	

		황필수본	전이채본	박세채본
		謁陶唐席廟詞 張宣公	謁陶唐席廟詞 張宣公	張敬夫畫像贊
		風雩亭記	風雩亭記	呂伯恭畫像贊
		自修命	自修命	書畫像自警
		夜氣箴 西山眞文忠先生 德秀 景元	夜氣箴	謁陶唐席廟詞 張宣公
				風雩亭記
				增自修命
				夜氣箴 西山眞文忠先生 德秀 景元

		황필수본	전이채본	박세채본
권 2	五言 絶句	門扉 出南軒語錄 周濂溪	門扉 出南軒語錄 周濂溪	門扉 出南軒語錄 濂溪
		歲寒 邵康節	歲寒 邵康節	歲寒 康節
		清夜	清夜	清夜 吟
		安分 注 -	安分 注 -	增安分 吟 注 -
		感事吟 注 -	感事吟 注 -	增感事吟 注 -
		屏山 劉屏山	屏山 劉屏山	刪屏山 劉屏山
		雨 朱韋齋 名宋 字喬年	雨 朱韋齋 名宋 字喬年	刪雨 朱韋齋
		西嶼 朱文公	西嶼 朱文公	百丈巖石磴 文公
		雪谷諸詠	雪谷諸詠	小澗
		連沼	連沼	紅焦
		藥圃	藥圃	刪枕屏秋景
		晦巖	晦巖	西閣
		草廬	草廬	刪君子亭
		懷仙	懷仙	用分水鋪壁間韻
		北澗 有仁義石	北澗 有仁義石	增奉同張敬夫城南諸詠
		休庵	休庵	右東渚
		武夷精舍雜詠 并序	武夷精舍雜詠	右船齋
		精舍	精舍	右麗澤堂
		仁智堂	仁智堂	右藥圃
		隱求齋	隱求齋	右書樓
		止宿庵	止宿庵	右蒙軒
		石門塢	石門塢	右卷雲亭
		觀善齋	觀善齋	右濯溝
		寒樓館	寒樓館	右西嶼
		晚對亭	晚對亭	增雪谷諸詠
		鐵笛亭	鐵笛亭	右雲谷
		釣磯	釣磯	右連沼
		茶竈	茶竈	右藥圃
		漁艇 精舍盡於次	漁艇 精舍盡於次	右晦巖
		百丈巖石磴	百丈巖石磴	右草廬
		小澗	小澗	右懷仙
		紅焦	紅焦	右北澗 有仁義石
		枕屏秋景	枕屏秋景	右休庵

		항필수본		전이채본		박세채본	
		西閣		西閣		武夷精舍雜詠 并序	
		君子亭		君子亭		右精舍	
		用分水鋪壁間韻		用分水鋪壁間韻		右仁智堂	
		奉張敬夫城南詠		奉張敬夫城南詠		右隱求齋	
		船齋		船齋		右止宿庵	
		麗澤堂		麗澤堂		右石門塢	
		藥礪		藥礪		右觀善齋	
		書樓		書樓		右寒樓館	
		蒙軒		蒙軒		右晚對亭	
		卷雲亭		卷雲亭		右鐵笛亭	
		濯溝		濯溝		右釣磯	
		送定叟弟官桂幕	張南軒	送定叟弟官桂幕	張南軒	右茶竈	
		桃花塢		桃花塢		右漁艇	
		吟風橋		吟風橋		刪 送定叟弟官桂幕	南軒
		竹窓	成公呂東萊 名祖謙 字伯恭	竹窓	呂東萊	刪 桃花塢	
		魚舟晚笛	王魯齋	魚舟晚笛	王魯齋	吟風橋	
		風雲掩靄		風雲掩靄		竹窓	東萊
		野渡		野渡		刪 魚舟晚笛	魯齋
		山居 已上并畫題		山居 已上并畫題		刪 風雲掩靄	
		題畫扁	王立齋 字剛仲	題畫扁	王立齋	刪 野渡	
		其二		其二		刪 山居 已上并畫題畫	
	五言律詩	同宋復古遊山顛至大林寺	周濂溪	同宋復古遊山至顛大林寺	周濂溪	刪 題畫扁	王立齋
		譚虞部叻致任		譚虞部叻致任		刪 又	
		陳公廩園修稷事席上賦	程明道	陳公廩園修稷事席上賦	程明道	刪 同宋復古遊山顛至大林寺	濂溪
		遊紫閣山 文公曰鄆縣遊山諸詩少年所作		遊紫閣山 文公曰鄆縣遊山諸詩少年所作		譚虞部叻致任	
		和王安石之花菴		和王安石之花菴		陳公廩園修稷事席上賦	(줄바뀐)明道
		仙鄉	邵康節	仙鄉	邵康節	刪 遊紫閣山 文公曰鄆縣遊山諸詩少年所作却佳	
		冬至吟		冬至吟		和王安石之花菴	
		其二 文公曰...外之旨		其二 文公曰...外之旨		仙鄉	康節
		晚涼閑步		晚涼閑步		冬至吟	
		再和王不疑少卿見贈		再和王不疑少卿見贈		又	
		天道吟		天道吟		晚涼閑步	
		閒吟		閒吟		刪 再和王不疑少卿見贈	
		觀物		觀物		增 天道吟	
		贈堯夫	涼水先生司馬文正公 名光 字君實	贈堯夫	涼水先生司馬文正公 名光 字君實	增 閒吟	
		錢賀方回分韻歸字	廣平游公 名肅 字定天	錢賀方回分韻歸字	游公	增 觀物	
		攬翠軒	了翁陳忠肅公 名理 字彞仲	攬翠軒	陳忠肅公	增 贈堯夫先生	涼水先生司馬文正公
		春日書懷	武夷先生胡文定 名安國 字康侯	春日書懷	胡文定	刪 錢賀方回分韻歸字	(줄바뀐)御史游公 肅 定天

황필수본			전이채본			박세채본		
	首夏言懷		首夏言懷			攬翠軒	陳忠肅公	
	送常正字赴召	呂舍人 名本中 字居仁	送常正字赴召	呂舍人		刪春日書懷	胡文定	
	種竹頗有生意	曾文清	種竹頗有生意	曾文清		首夏言懷		
	贈外孫呂祖謙		贈外孫呂祖謙			增送常正字赴召	呂舍人	
	月下	朱韋齋	月下	朱韋齋		刪種竹頗有生意	曾文清	
	傳知郡相過九日山 夜泛舟劇飲	朱文公	傳知郡相過九日山 夜泛舟劇飲	朱文公		刪贈外孫呂祖謙		
	挽延平李先生		挽延平李先生			刪月下	朱韋齋	
	其二		其二			刪傳知郡相過九日山 夜泛舟劇飲	(줄마귀) 文公	
	宿休菴贈陳道人		宿休菴贈陳道人			挽延平李先生		
	同敬夫登祝融峰用 擇之韻		同敬夫登祝融峰 用擇之韻			增又		
	嶽頂上封寺有懷元 晦	長宣公	嶽頂上封寺有懷 元晦	長宣公		增宿休菴贈陳道人		
	喜聞定叟弟歸		喜聞定叟弟歸			同敬夫登祝融峰用 擇之韻		
	默侄之官		默侄之官			嶽頂上封寺有懷元晦	(줄마귀) 長宣公	
	夏夜	呂東萊	夏夜	呂東萊		刪喜聞定叟弟歸		
	秋日		秋日			默侄之官		
	端明汪公挽章		端明汪公挽章			刪夏夜	東萊	
	其二		其二			刪秋日		
	林居	西山蔡文公 名元定 字 李通	林居	蔡文公		端明汪公挽章		
	訪高僉判故居	黃文肅公 名 字	訪高僉判故居	黃文肅公		又		
	和陳叔餘韻	陳北溪	和陳叔餘韻	陳北溪		增林居	蔡文公	
	贈琴士劉伯華	蔡九峰 名伋 字仲默	贈琴士劉伯華	蔡九峰 伋 仲默		訪高僉判故居	黃文肅	
	蔡西山挽詩	南豐曾雲巢 名極 字景運	蔡西山挽詩	南豐曾雲巢 極 景運		和陳叔餘韻 勉之	陳北溪	
	晦庵先生挽章 孔子 生於庚戌公又生於庚戌		晦庵先生挽章 孔子 生於庚戌公又生於庚戌			增贈琴士劉伯華	蔡九峰 伋 仲默	
	訪楊船山道中迷途 知汪元思韻	何北山	訪楊船山道中迷 途知汪元思韻	何北山		刪蔡西山挽詩	南豐曾雲巢 極 景運	
	迷途有感次韻	王魯齋	迷途有感次韻	王魯齋		刪晦庵先生挽章 孔子 生於庚戌公又生於庚戌		
	新竹次韻		新竹次韻			刪訪楊船山道中迷途 知汪元思韻	(줄마귀) 何北山	
	過分水嶺卽事次韻	王立齋	過分水嶺卽事次韻	王立齋		迷途有感次韻	魯齋	
	仁術	朱文公	仁術	朱文公		新竹次韻		
	聞善決江河		聞善決江河			刪過分水嶺卽事次韻	(줄마귀) 王立齋	
	孝宗皇帝晚章		孝宗皇帝晚章			五言排律 三首 (卷3 卅四)		
	齋居感興 二十首		齋居感興 二十首			增仁術	朱文公	
	其二		其二			增聞善決江河		
	……		……			增孝宗皇帝晚章		
	其二十		其二十			齋居感興 二十首		
						其二		
						……		
						其二十		

		황필수본		전이채본		박세채본	
권3	七言絶句	題劒門關	周濂溪	(권4) 七言絶句		(권6)七言絶句190首	
		太顓堂		太顓堂		太顓堂	
		雲都羅巖		雲都羅巖		雲都羅巖	
		春日偶成	程明道	春日偶成	程明道	春日偶成	明道
		下山		下山		下山	
		呈邑令張寺丞		呈邑令張寺丞		呈 邑令張寺丞	
		和諸公梅堂		和諸公梅堂		和諸公梅堂	
		後一日又和		後一日又和		後一日又和	
		題淮南寺		題淮南寺		題 淮南寺	
		送呂晦叔赴河陽		送呂晦叔赴河陽		送呂晦叔赴河陽	
		又贈司馬君實		又贈司馬君實		又贈司馬君實	
		酬韓資政湖上獨酌見贈		酬韓資政湖上獨酌見贈		增 酬韓資政湖上獨酌見贈	
		謝王佺期贈舟	程伊川	謝王佺期贈舟	程伊川	謝王佺期贈舟	伊川
		別館中諸公	張橫渠	別館中諸公	張橫渠	別館中諸公	橫渠
		聖心		聖心		聖心	
		呂不韋春秋		呂不韋春秋		呂不韋春秋	
		我欲		我欲		我欲	
		萱草		萱草		刪 萱草	
		芭蕉 借物形容人心生生之理無窮		芭蕉 借物形容人心生生之理無窮		芭蕉	
		誠明吟	邵康節	誠明吟	邵康節	增 誠明吟	康節
		暮春吟		暮春吟		刪 暮春吟	
		崇德久待不至	司馬涑水	崇德久待不至	司馬涑水	增 崇德久待不至	涑水
		含雲寺書事三首	楊龜山 名時 字仲立	含雲寺書事三首	楊龜山	含雲寺書事三首	龜山
		其二		其二			
		其三		其三			
		瀏陽歸鴻閣		瀏陽歸鴻閣		刪 瀏陽歸鴻閣	
		江上夜行		江上夜行		刪 江上夜行	
		登峴首阻兩 (四首X)		登峴首阻兩 (四首X)		刪 登峴首阻兩 四首	
		其二		其二			
		其三		其三			
		其四		其四			
		渚宮觀梅寄胡康候		渚宮觀梅寄胡康候		渚宮觀梅寄胡康候	
		春晚		春晚		刪 春晚二首	
		其二		其二			
		閒居書事		閒居書事		刪 閒居書事	
		南溪淡真閣閑望	呂芸閣	南溪淡真閣閑望	呂芸閣	刪 南溪淡真閣閑望	呂芸閣
		春靜		春靜		刪 春靜	
		探春		探春		刪 探春	
		送劉戶曹		送劉戶曹		送劉戶曹	
		禮 論禮無後無先至當行者便行		禮 論禮無後無先至當行者便行		禮	
		寒食道中		寒食道中		寒食道中	
		藍田		藍田		藍田	

	황필수본	전이채본	박세채본
	克已	克已	克已
	四子言志 諸子皆爲功名所累 維曾點所樂天理	四子言志 諸子皆爲功名所累 維曾點所樂天理	增 四子言志
	經筵大雪不罷講 二首 呂榮陽公	經筵大雪不罷講 二首 呂榮陽公	經筵大雪不罷講 二首 (줄바뀌) 呂榮陽公
	其二	其二	
	過冲明逸故居 尹和靖 名淳 字彥幽	過冲明逸故居 尹和靖	刪 過冲明逸故居 尹和靖
	自秦入獨道中 二首	自秦入獨道中 二首	自秦入獨道中
	其二	其二	
	重過丫頭巖思先大夫 二首 胡文定	重過丫頭巖思先大夫 二首 胡文定	重過丫頭巖思先大夫 (줄바뀌) 胡文定公
	其二	其二	
	黃石山	黃石山	刪 黃石山
	雜詩 陳了翁	雜詩 陳了翁	雜詩 諫議陳忠肅公 榮中了翁
	無題 呂舍人	無題 呂舍人	無題 呂舍人
	顏樂亭 羅豫章 名從彥 字仲素	顏樂亭 羅豫章	顏樂亭 羅豫章
	邀月堂	邀月堂	刪 邀月堂
	贈和李延平	贈和李延平	X
	自述	自述	刪 自述
	李愿中以書求道甚力作詩以勉其意	李愿中以書求道甚力作詩以勉其意	刪 李愿中以書求道甚力作詩以勉其意
	柘軒 三首 李延平 名侗 字愿仲	柘軒 三首 李延平	柘軒 三首 李延平
	其二	其二	
	其三	其三	
	X	X	羅先生賜和 增刪本作豫章詩
	奉家君遷居書堂道中作 胡致堂 名寅 字明仲	奉家君遷居書堂道中作 胡致堂	刪 奉家君遷居書堂道中作 (줄바뀌) 胡致堂
	和唐人未到五更猶是春	和唐人未到五更猶是春	和唐人未到五更猶是春
	利欲 胡五峯	利欲 胡五峯	利欲 胡五峯
	讀朱元晦詩	讀朱元晦詩	讀朱元晦詩
	長淮有感 曾茶山	長淮有感 曾茶山	刪 長淮有感 曾茶山
	夏夜聞雨	夏夜聞雨	刪 夏夜聞雨
	南浦征官迎勞二弟 二首 朱韋齋	南浦征官迎勞二弟 二首 朱韋齋	南浦征官迎勞二弟 二首 朱韋齋
	其二	其二	
	寄吳大卿	寄吳大卿	刪 寄吳大卿
	送勾道人之玉山	送勾道人之玉山	刪 送勾道人之玉山
	石門寺	石門寺	刪 石門寺
	墨梅 二首	墨梅 二首	刪 墨梅 二首
	其二	其二	
	五二郎生日 卿文公 元本誤作十二	五二郎生日 卿文公 元本誤作十二	刪 五二郎生日 卿文公 元本誤作十二
	和王龜齡不欺堂 二首 林拙齋	和王龜齡不欺堂 二首 林拙齋	刪 和王龜齡不欺堂 一絕 (줄바뀌) 林拙齋
	其二	其二	
	燈 二首	燈 二首	刪 燈 二首
	其二	其二	

	황필수본	전이재본	박세채본
	命卜 徐逸平	命卜 徐逸平	命 命卜 徐逸平
	克已 朱文公	克已 朱文公	克已 朱文公
	曾點	曾點	曾點
	春日 二首	春日 二首	春日 二首
	其二	其二	
	觀書有感 二首	觀書有感 二首	觀書有感
	其二	其二	
	瑞巖道間	瑞巖道間	瑞 瑞巖道間
	用西林舊韻 延平先生宅遷寺文公嘗館其處	用西林舊韻 延平先生宅遷寺文公嘗館其處	用西林舊韻 延平先生宅遷寺文公嘗館其處
	胡氏客館壁間詩自警	胡氏客館壁間詩自警	胡 胡氏客館壁間詩自警
	題眞	題眞	題眞
	吳山高	吳山高	吳 吳山高
	水口行舟	水口行舟	增 水口行舟
	詠開窓	詠開窓	增 詠開窓
	奇籍溪 二首	奇籍溪 二首	增 奇籍溪
	其二	其二	
	石子中兄示詩留別次韻爲謝 三首	石子中兄示詩留別次韻爲謝 三首	增 石子中兄示詩留別次韻爲謝 三首
	其二	其二	
	其三	其三	
	送林熙之 二首	送林熙之 二首	增 送林熙之 二首
	其二	其二	
	敬義堂	敬義堂	增 敬義堂
	論啓蒙	論啓蒙 熊勿軒曰…相參看	增 答袁機仲論啓蒙
	易	易	增 易
	謝劉子澄寄羊裘 二首	謝劉子澄寄羊裘 二首	增 謝劉子澄寄羊裘 二首
	其二	其二	
	任子聞迅雷有感	任子聞迅雷有感	增 任子聞迅雷有感
	武夷權歌 十首	拜鴻慶宮有感	增 武夷權歌 十首
	其一	武夷權歌 十首	
	……	其一	
	其九	……	
	拜鴻慶宮有感	其九	增 拜鴻慶宮有感
	城南書院 八首 張宣公	城南書院 八首 張宣公	城南書院 八首 張宣公
	其二	其二	
	……	……	
	其八	其八	
	壽定叟弟	壽定叟弟	壽 壽定叟弟
	病起城南書事 二首	病起城南書事 二首	壽 病起城南書事 二首
	其二	其二	
	春日和陳澤之 四首	春日和陳澤之 四首	春日和陳澤之 四首
	其二	其二	
	……	……	
	其四	其四	

		황필수본	전이재본	박세채본
		春日西興道中 五首 呂成公	春日西興道中 五首 呂成公	春日西興道中五首 (줄바꿈) 呂成公
		其二	其二	
				
		其五	其五	
		晚春	晚春	晚春
		晚望	晚望	晚望
		入詠樓有感 王仲舒守 稔有異政	入詠樓有感 王仲舒守 稔有異政	入詠樓有感
		遊絲	遊絲	遊絲
		題劉氏綠映亭二首	題劉氏綠映亭二首	題劉氏綠映亭二首
		其二	其二	
		壽山寺	壽山寺	壽山寺
		雙髻峯	雙髻峯	雙髻峯
		讀荊軻傳	讀荊軻傳	讀荊軻傳
		倚門 徐穀齋	倚門 徐穀齋	倚門 徐穀齋
		偶書 二首	偶書 二首	偶書二絕
		其二	其二	
		幽居 楊船山	幽居 楊船山	幽居 楊船山
		溪頭	溪頭	溪頭
		濂溪 曾雲巢	濂溪 曾雲巢	濂溪 曾雲巢
		晚晴便有春意 鞏栗齋	晚晴便有春意 鞏栗齋	晚晴便有春意 鞏栗齋
		炊熟日有愴松楸	炊熟日有愴松楸	炊熟日有愴松楸
		從先生明招道中呈 伯廣炳道 時南堂	從先生明招道中呈 伯廣炳道 時南堂	從先生明招道中 呈伯廣炳道 (줄바꿈) 時南堂
		柳 趙章泉 名藩 字昌夫	柳 趙章泉 藩 昌夫	柳 趙章泉 藩 昌夫
		登南嶽上封寺 眞西山	登南嶽上封寺 眞西山	登南嶽上封寺 眞西山
		書事 葉平巖 名采 字仲圭	書事 葉平巖 采 仲圭	書事 葉平巖 采 仲圭
		春日閒居	春日閒居	春日閒居
		春晚郊行	春晚郊行	春晚郊行
		法清寺水珠呈社季 高	法清寺水珠呈社季 高	法清寺水珠呈社 季高
		夾行梅	夾行梅	夾行梅
		寬兒輩	寬兒輩	寬兒輩
		雜詩 三首	雜詩 三首	雜詩
		其二	其二	
		其三	其三	
		送王敬巖江東憲節 三首	送王敬巖江東憲節 三首	送王敬巖江東憲節 三絕
		其二	其二	
		其三	其三	
		繳回太守趙庸齋照 牒	繳回太守趙庸齋照 牒	繳回太守趙庸齋 照牒
		題徐伯光眞	題徐伯光眞	題徐伯光眞
		三閭大夫 王文憲	三閭大夫 王文憲	三閭大夫 王文憲
		張子房	張子房	張子房
		題諸葛武侯畫像	題諸葛武侯畫像	題諸葛武侯畫像
		羊叔子畫像	羊叔子畫像	羊叔子畫像
		陶淵明	陶淵明	陶淵明

		황필수본		전이채본		박세채본	
		元夕獨坐		元夕獨坐		刪元夕獨坐	
		贈尋賢趙相士		贈尋賢趙相士		刪贈尋賢趙相士 納 中有尋賢牌	
		和劉叔崇晚春		和劉叔崇晚春		和劉叔崇晚春	
		蘭亭記		蘭亭記		刪蘭亭記	
		題浴沂圖		題浴沂圖		題浴沂圖	
		題流觴圖		題流觴圖		刪題流觴圖	
		題長杠圖 三首		題長杠圖 三首		題長杠圖三首	
		其二		其二			
		其三		其三			
		題書日		題書日		刪題書日	
		葉西廬惠冬菊		葉西廬惠冬菊 三首		刪葉西廬惠冬菊三絕	
		其二		其二			
		其三		其三			
		題惠齋梅軸		題惠齋梅軸		題惠齋梅軸	
		查林對月 王立齋		查林對月 王立齋		刪查林對月 王立齋	
		過馮嶺感舊		過馮嶺感舊		刪過馮嶺感舊	
		寄玉澗		寄玉澗		刪寄玉澗	
		別福清玉融諸友 五首 熊退齋		別福清玉融諸友 五首 熊退齋		增別福清玉融諸友 五首 (줄바뀌)熊退齋	
		其二		其二			
							
		其五		其五			

		황필수본		전이채본		박세채본	
권4	七言律詩	香城寺別虔守趙公 閣道 周濂溪		권5 七言律詩 香城寺別虔守趙公 閣道 周濂溪		권지7 七言律詩 一百一十一首 香城寺別虔守趙公 閣道 (줄바뀌)濂溪	
		秋日偶成 程明道		秋日偶成 程明道		秋日偶成 明道	
		郊行卽事		郊行卽事		郊行卽事	
		和堯夫打乘吟二首 二首○打乘打疊乘辰以混世也		和堯夫打乘吟二首 二首○打乘打疊乘辰以混世也		和堯夫打乘吟二首	
		其二		其二			
		哭張子厚先生		哭張子厚先生		哭張子厚先生	
		集義齋 張橫渠		集義齋 張橫渠		集義齋 橫渠	
		契中		契中		契中	
		孤宦		孤宦		孤宦	
		龍門途中 邵康節		龍門途中 邵康節		龍門途中 康節	
		何事吟寄三成富相國		何事吟寄三成富相國		何事吟寄三成富相公	
		仁者吟		仁者吟		仁者吟	
		閑行吟		閑行吟		閑行吟	
		安樂窩中自胎		安樂窩中自胎		安樂窩中自胎	
		觀易吟		觀易吟		觀易吟	
		觀物吟 三十六宮八卦數也又云爻畫也		觀物吟 三十六宮八卦數也又云爻畫也		觀物吟	
		安樂窩中吟		安樂窩中吟		刪安樂窩中吟	

	황필수본	전이채본	박세채본
	首尾吟十一首	首尾吟十一首	首尾吟(十一首X)文 公曰.....生焉
	其二	其二	
			
	其十一	其十一	
	天意 言天道自然大富絕利 欲之心以求造聖人之極致	天意 言天道自然大富絕利 欲之心以求造聖人之極致	增天意
	極論	極論	增極論
	先天吟	先天吟	增先天吟
	謝副丞相招出任將 命者云不欲任亦可奉致一 開名目	謝副丞相招出任將 命者云不欲任亦可奉致一 開名目	增謝副丞相招出任
	效堯夫體寄仲兄 呂芸閣 名大防 字微仲	效堯夫體寄仲兄 呂芸閣 名大防 字微仲	效堯夫體寄仲兄 大 防 微仲 (줄바꿈) 呂芸閣
	韋氏獨樂堂 游定夫	韋氏獨樂堂 游定夫	刪韋氏獨樂堂 游定夫
	韋深道寄傲軒	韋深道寄傲軒	刪韋深道寄傲軒
	望湖樓晚眺 楊龜山	望湖樓晚照 楊龜山	刪望湖樓晚眺 楊龜山
	秋晚偶成 二首	秋晚偶成 二首	秋晚偶成(2首X)
	其二	其二	
	閒居書事	閒居書事	閒居書事
	再謫宿能仁寺 鄒道鄉	再謫宿能仁寺 鄒道鄉	刪再謫宿能仁寺 鄒道鄉
	閒踏正夫遷門下	閒踏正夫遷門下	閒踏正夫遷門下
	雜詩 陳忠肅	雜詩 陳忠肅	雜詩 陳忠肅
	過鳳林關 戊戌 胡文定	過鳳林關 胡文定	刪過鳳林關 戊戌 胡文定公
	奉次朱子發稷飲壁 泉	奉次朱子發稷飲壁 泉	刪奉次朱子發稷飲 壁泉
	舟入荊江東赴建康	舟入荊江東赴建康	舟入荊江東赴建康
	宿州初署 呂舍人	宿州初署 呂舍人	刪宿州初署 呂舍人
	效樂天體送范十八 歸江西	效樂天體送范十八 歸江西	效樂天體送范十八 歸江西
	寄傲軒 羅文質公	寄傲軒 羅文質公	刪寄傲軒 羅文質公
	寄許子禮 曾文清公	寄許子禮 曾文清公	刪寄許子禮 曾文清公
	食葍	食葍	刪食葍
	送沈昌時赴寧海令 朱韋齋	送沈昌時赴寧海令 朱韋齋	刪送沈昌時赴寧海令 (줄바꿈) 朱韋齋
	贈范直夫	贈范直夫	刪贈范直夫
	和仁仲治圃韻 胡致堂	和仁仲治圃韻 胡致堂	和仁仲治圃韻 胡致堂
	和仲固	和仲固	和仲固
	貧病視學者 胡五峯	貧病視學者 胡五峯	刪貧病視學者 胡五峯
	金陵懷古 劉屏山	金陵懷古 劉屏山	刪金陵懷古 劉屏山
	北風	北風 方虛谷曰...方切	增北風
	癸未冬至 林拙齋	癸未冬至 林拙齋	刪癸未冬至 林拙齋
	九日天湖分韻得歸 字 朱文公	九日天湖分韻得歸 字 朱文公	刪九日天湖分韻得 歸字 (줄바꿈) 朱文公
	壽田	壽田	壽田
	日用自警示平父	日用自警示平父	日用自警示平父
	次卜掌書落成白鹿 佳句	次卜掌書落成白鹿 佳句	增次卜掌書落成白 鹿佳句
	白鹿講會次方丈韻	白鹿講會次方丈韻	增白鹿講會次方丈韻
	次韻叔夜雪後書事	次韻叔夜雪後書事	增次韻叔夜雪後書事
	次鵝湖韻	次鵝湖韻	增次鵝湖韻 陸子壽

	황필수본	전이채본	박세채본
	九日與賓佐登龍山 張宣公	九日與賓佐登龍山 張宣公	九日與賓佐登龍山 (줄바뀌) 張宣公
	贈樂忠恕	贈樂忠恕	贈樂忠恕
	和宇文正甫探梅	和宇文正甫探梅 ^方 盧谷曰…之矣	增和宇文正甫探梅
	送柳嚴州趙朝 呂成公	送柳嚴州趙朝 呂成公	送柳嚴州趙朝 呂成公
	恭和御製秋日幸秘書省近體詩	恭和御製秋日幸秘書省近體詩	增恭和御製秋日幸秘書省近體詩
	鵲湖詩同志 陸復齋 ^{名九齡 字子壽}	鵲湖詩同志 陸復齋 ^{九齡 子壽}	增鵲湖詩同志 陸復齋 ^{九齡 子壽}
	次晦翁韻 蔡西山	次晦翁韻 蔡西山	次晦翁韻 蔡西山
	西齋	西齋 ^{熊勿軒曰…所挽}	增西齋
	和江西王倉使中秋 黃勉齋	和江西王倉使中秋 黃勉齋	(줄바뀌) 黃勉齋
	林戶求明道堂詩 陳北溪	林戶求明道堂詩 陳北溪	林戶求明道堂詩 陳北溪
	卽事 徐穀齋	卽事 徐穀齋	卽事 徐穀齋
	省過 程端蒙 ^{名端蒙 字正思}	省過 蒙齋程端蒙 ^{正思}	省過 蒙齋程端蒙 ^{正思}
	哭祭西山 趙章泉	哭祭西山 趙章泉	刪哭祭西山 趙章泉
	答故人 遠菴方 ^{名伯謨}	答故人 遠菴方 ^{名伯謨}	刪答故人 遠菴方伯謨
	長沙會十二縣宰 眞西山	長沙會十二宰 眞西山	長沙會十二縣宰 眞西山
	使都梁次韻	使都梁次韻	使都梁次韻
	次韻袁尊固監丞別 ^{二首}	次韻袁尊固監丞別 ^{二首}	增次韻袁尊固監丞別 ^{二首} (줄바뀌) 魏鶴山
	其二	其二	
	送眞泉州 曾雲巢	送眞泉州 曾雲巢	刪送眞泉州 ^{西山} 曾雲巢
	寄陳正巳	寄陳正巳	刪寄陳正巳
	春望 蔡節齋	春望 蔡節齋	刪春望 蔡節齋
	約友人賞春	約友人賞春	約友人賞春
	送淮西左憲知黃州	送淮西左憲知黃州	送淮西左憲知黃州 (줄바뀌) 何文定
	端平乙未新元 王文憲	端平乙未新元 王文憲	刪端平乙未新元 王文憲
	時充之訪盤溪有詩次韻	時充之訪盤溪有詩次韻	刪時充之訪盤溪有詩次韻
	何無適同宿山中次韻	何無適同宿山中次韻	刪何無適同宿山中次韻
	科學	科學	科學
	有人說用	有人說用	刪有人說用
	和伯兄適莊訪入齋	和伯兄適莊訪入齋	刪和伯兄適莊訪入齋
	重題八詠樓	重題八詠樓	刪重題八詠樓
	送趙素軒去婺守爲本道倉使	送趙素軒去婺守爲本道倉使	送趙素軒去婺守爲本道倉使
	新秋自警	新秋自警	新秋自警
	明月樓曹守邀和	明月樓曹守邀和	刪明月樓曹守邀和
	乙巳元日鰲峯書堂會拜五十五人 熊退齋	乙巳元日鰲峯書堂會拜五十五人 熊退齋	增乙巳元日鰲峯書堂會拜五十五人 (줄바뀌) 熊退齋
	閱讀書	閱讀書	增閱讀書有感
	經理武夷書院	經理武夷書院	增經理武夷書院
	蒼蒼吟寄答曹州李審言龍圖 邵康節	蒼蒼吟寄答曹州李審言龍圖 邵康節	七言排律 다른 판본은 구분하지 않고 七言律詩 끝에 넣음 (줄바뀌) 康節
	瀟洛風雅跋: 光武壬寅(1902)六月上黃澣檜山黃泌秀謹書.	刊行記: 田以采梓	

박세채 본에만 수록 된 내용				
권 3	五言古風八十八首	移疾	橫渠	
		古樂府君子行		
		增 觀物詩	康節	
		書座右	學士張思叔 繹	
		寄友人		
		此因不再得	龜山楊文靖公 時 中立	
		寄臨川學者三首	東萊呂舍人 本中 居仁	
		刪 出門見明月		
		刪 微雨	吏部朱韋齋 松 喬年	
		刪 秋懷		
		刪 度石棟嶺		
		刪 雜典題永和壁		
		負暄	屏山劉彥 中子輩羽	
		刪 飲租戶		
		刪 種菜		
		刪 遠遊篇 十九歲所作	朱文公	
		刪 酬敬夫贈言并以爲別		
		又		
		臥龍庵武侯祠		
		齋居感興二十首		
		右一章		章표시 아래 소자 注
		……		
		右二十章		
		贈 述懷		
		贈 陶公醉石歸去來館		
		贈 雲谷雜詩 二十首		
		右登山		
		右值風		
		右翫月		
		右謝客		
		右勞農		
		右講道		
		右懷人		
		右倦游		
		右修書		
		右宴座		
		右下山		
		右還家		
		贈 山北紀行二十章章入句		
		贈 感懷		
		送元晦	南軒	
		送楊廷秀		
		又		
		增 過胡文定公壁泉草堂		
		送九宗卿出守嘉禾視民如傷爲韻	(줄바꿈) 東萊呂成公 祖謙 伯恭	
		視		

			民			
			如			
			傷			
		答曾伯玉			勉齋黃文肅公 韓 直卿	
		陳憲仁智堂西友清軒			(줄바꾸)北溪陳公 淳 安卿	
		刪竹門			待制徐毅齋 倫	
		虎丘謁和靖詞			丘部李東窓 道傳 貫之	
		送陽伯記			眞西山	
		定王臺送舍弟赴岳陽司理				
		又				
		暮春感興			北山	
		刪和吳巽之石菖浦				
		懷古呈通守鄭定齋 四鏡 四首			(줄바꾸)魯齋	
		刪和立齋踏月歌				
		刪西倅廳水雪樓次韻				
		刪夜對梅花示彥恭姪			(줄바꾸)王立齋	
		刪又				
		增上巖察訪七首			熊退齋 禾 去非	
		又				
		又				
		又				
		又				
		又				
		又				

권4 (8張)	今體	七言古風17首	宿興慶池通軒示同志	(줄바꾸) 橫渠	
			刪岳陽書事	楊龜山	
			刪憶別	呂舍人	
			刪牧牛兒		
			題浯溪	待郎胡致堂 寅 明仲	
			桃源行	胡五峯	
			刪少稷賦十二相屬詩戲贈	(줄바꾸) 劉屏山	마지막에 소자로 ‘第五句有落字’
			刪古墨行 江南李氏舊物		
			刪飲梅花下贈客	朱韋齋	
			增與諸人用東坡韻共賦梅花適得元履書有懷其人因復賦此以寄意焉	(줄바꾸) 朱文公	
			刪送八兄歸廣漢	張宣公	
			刪王剛仲惠詩醉筆聊和	(줄바꾸)劉摯堂 炎 潛夫	
			西山孝子吟	何文定	
			刪老菊此時所性韻	王文憲	
			刪題定武蘭亭副本		
			刪冬日雜興二首	王立齋	
			增與徐同志 號石壁	熊退齋	

4. 결 언

황필수는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시대에 활약했던 매우 중요한 도서편찬자였다. 그가 편찬한 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하나는 유학을 천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의 계몽이었다. 본고의 대상인 『增刪濂洛風雅』 황필수 교정본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는 도서이다.

송말원초의 신유학자인 金履祥이 편집하고 唐良瑞가 재정리하여 출간한 『濂洛風雅』는 송대의 성리학자들이 지은 시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시와 문의 부분으로 나누어 채록한 것이다. 조선조에 전래된 이래, 신유학의 정수를 알 수 있는 책이라고 인식되어 여러 유학자들의 중요 독서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 중기의 학자인 朴世采가 이 책의 내용을 독자적인 관점에서 첨삭한 『增刪濂洛風雅』를 출판하였고, 이 책은 여러 판본이 전할 정도로 몇 차례의 출판을 거듭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유학자들이 선호하는 도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 중요한 판본이 田以采가 간행한 것인데, 전이채가 직접 편찬하지는 않았겠지만, 박세채의 증산본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황필수의 교정본은 전이채본을 저본으로 삼아 교정한 것인데, 교정의 내용이 많지는 않다. 이는 황필수가 박세채본 보다는 전이채본이 도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황필수는 전문 도서편찬자의 안목으로 권1과 권2를 분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권2책의 전이채본을 4권2책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된 작자의 名字를 기록하면서도 名과 字를 확실하게 밝혔는데, 이는 초학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황필수는 자신의 학동들에게 詩를 가르치기 위한 텍스트로 이 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으나, 황필수와 지송옥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송옥이 출판 목적으로 황필수에게 『增刪濂洛風雅』의 교정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의 출판문화사적 관점에서 볼 때, 지송옥과 황필수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유학의 천명과 민중 계몽이라는 동일 인식하에 여러 도서를 출판함으로써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황필수가 교정한 『濂洛風雅』는 조선 말기 출판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황필수라는 특출한 도서편찬자의 의식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규장각 도서해제

<http://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金履祥. 『濂洛風雅』.

羅從彦. 『豫章文集』 卷13.

閔種默. 『新編尺牘大方序』.

朴世采. 『南溪集』 卷66.

朴世采. 『增補濂洛風雅』.

『元史』.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15.

李滉. 『退溪集』. 권22.

朱熹 著, 白殷基 譯註. 『周易本義』. 서울: 여강출판사, 1999.

김기림. “朴世采의 『增刪濂洛風雅』에 대한 고찰.” 『東洋古典研究』 Vol.6(1996. 5). 107-135.

김동하. “朴世采의 『增刪濂洛風雅』 增補作品 考.” 『한국시가문화연구』 Vol.38(2016). 71-103.

김영봉. “『염락풍아』 이본 연구.” 『동방고전문학연구』 제4집(2002). 5-38.

김순희. “黃泌秀의 『達道大全』 고찰.” 『서지학연구』 제68집(2016. 12). 125-152.

김순희. “『新式儒胥必知』 고찰.” 『서지학연구』 제63집(2015. 9). 177-198.

김종천. “黃泌秀와 그의 편간서들.” 『서지학연구』 제10집(1994. 6). 275-288.

朴素鉉. “金履祥 『濂洛風雅』 在宋儒選本上的定位.” 『中國學』 第54輯(2016. 3). 227-232.

范壽康 著, 洪瑀欽 譯. 『朱子와 그 哲學』. 대구: 嶺南大學校出版部. 1988.

柳鐸一. “湖南地方刊行 坊刻本 연구(2).” 『인문논총』 제23집(1983). 37-48.

이경현. “1910년대 新文館의 문학 기획과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이장우. “이퇴계와 『濂洛風雅』.” 『퇴계학연구』 13집(1993). 162-168.

최은주. “朝鮮後期 『濂洛風雅』의 수용양상과 그 의미.” 『大東漢文學』 Vol.26(2007). 249-280.

최호석. “지송옥과 신구서림.” 『고소설연구』. 19(2005. 6). 255-282.